

광주 남구·광산구, 나주·담양 땅값 강세

국토부 상반기 지가 동향...광주 2.08%·전남 1.84% ↑ 값 오르고 거래량 급증...전국 지가상승률 11년래 최고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땅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남구와 광산구가 전년에는 나주시와 담양군의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17년 상반기 전국 지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지가변동률은 2.08%, 전남은 1.84% 상승했다. 광주는 지난 1분기 0.70% 상승했으나, 2분기에는 1.3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남은 지난 1분기 0.78% 상승에 그쳤으

나, 2분기 1.05%로 상승폭이 커졌다. 광주에서는 남구(2.84%)와 광산구(2.48%)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광주 남구는 도시첨단산단개발 등 진척과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밸리사업 기대감으로, 광산구는 평동3차단지 등 개발 진척과 송정역 환승센터,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전남에서는 나주시(2.62%)와 담양군(2.57%)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나주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새정부 정책에 따

른 활성화 기대감으로,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 유입으로 상승했다. 분석이다.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토지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 광주지역 토지거래량(건축물 부속토지+순수토지)은 3만5569필지로 전년동기 2만8368필지에 비해 25.3% 뛰었으며 5년 상반기 평균과 비교해서는 8.7% 증가했다. 순수토지만의 거래량은 6311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5.9% 늘었다.

전남은 9만272필지로 전년 8만2453필지에 비해 9.5% 증가했다. 순수토지 기준으로는 거래량은 6만5253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9.8% 늘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지가는 투자수요를 찾지 못한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거래량 역시 투자수요와 전원주택 수요 유입으로 증가세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뛰면서 거래도 활발해져 지가상승률은 9년만에, 거래량은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작년 동기 1.25%보다 0.59%포인트 높은 1.84%를 기록했으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155만 3739필지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u.co.kr

광주·전남 산란계 감소 한우·돼지·오리는 증가

2017년 2분기 광주·전남지역 가축 사육마릿수가 전분기 대비 한·육우와 젓소, 돼지, 육계, 오리 는 증가했으나 산란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광주·전남지역 가축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 한·육우는 44만 마리로 전분기 대비 2만2000마리(5.3%), 젓소는 2만9800마리로 전분기 대비 800마리(2.6%) 증가했다. 한우 암컷 송아지 산지가격은 지난 2월 239만원에서 5월 282만 1000원으로 43만1000원(18%)이 올랐다. 수컷은 2월 257만8000원에서 5월 370만8000원으로 113만 원(43.8%) 상승했다.

돼지는 114만1000마리로 전분기 대비 6만6000마리(6.2%) 늘었다. 돼지 비육돈 110kg 1마리 산지 가격은 2월 36만2000원에서 5월 42만5000원으로 6만3000원(17.4%) 올랐다.

산란계는 425만2000마리로 입식 마릿수 감소에 따라 전분기 대비 19만2000마리(4.3%) 감소한 반면 육계는 1889만1000마리로 계절적 수요 증가와 사육가수 증가로 700만7000마리(59.0%)가 늘었다.

오리는 323만5000마리로 37만 7000마리(13.2%) 늘었다. 오리 사육가수 수는 3월 188가구에서 6월 212가구로 24가구(12.8%) 증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승진' 김희철 서울국세청장...호남 인맥 기대감

광주 개청이래 첫 사례...지역민 환영

김희철(사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7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1급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승진, 발령 돼 지역민들은 축하하는 분위기다.

광주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 하는 것은 광주지방국세청 개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서울청장이 광주청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그동안 광주청장들은 국세청 국장이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광주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04년 오재구 광주청장이 중부청장으로 승진한 게 '영전' 케이스다.

따라서 광주지방국세청 안팎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 출신이 1급(고위공무원 1급)으로 승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상징성이 크고 세원이 많은 서울청장으로 영전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청장을 역임하면 차기 유력 국세청장 후보로 꼽힐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광주청장이 곧바로 서울청장에 간 경우가 없어 직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동안 국세청 내에서 호남 출신 인맥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새로운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 출신인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광주청장으로 부임한 후 직원들과 소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26일 임명식에서 "이번 서울청장 승진이 개인의 힘보다는 직원 여러분과 지역민들의 성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믿는다"며 "이같은 기쁨과 행운을 모두와 나누고, 그동안 인연을 잊지 않고 광주청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u.co.kr



광주은행 희망공부방 31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은 지난 2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세자매 가정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31호점 선정식 및 공부방 꾸며주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대학생 SNS홍보대사들은 가정에 방문해 집안정소와 이층침대, 책걸상, 책상, 스탠드, 선풍기, 학습용 노트북을 설치해주며 공부방을 만들어 줬다. <광주은행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43.24 (+8.73)
- ↓ 금리 (국고채 3년) 1.71% (-0.02)
- ↓ 코스닥 666.48 (-0.74)
- ↓ 환율 (USD) 1112.80원 (-9.00)



제51대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식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과 세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세법질서 확립, 국세청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줄 잇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성명

'금사모'·전남 농어촌버스업계 "결사 반대"

금호타이어 퇴직자들로 구성된 '금호타이어를 사랑하는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와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금호타이어를 사랑하는 모임은 27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라는 후발기업에 부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채권단은 불공정한 매각 절차와 불합리한 매각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치졸한 자금 압박과 압박과 경영권 해임 등 '상식 밖의 갑질'을 자행,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렸기에 더 이상 매각을 주도하고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블스타로 매각될 시 브랜드 가치 저하, 지역 경제 악영향이 분명하

고 국내 공장의 축소·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 농어촌버스업계도 전남버스조합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결사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함평·영광·강진·곡성·보성·장흥·해남교통, 군민·담양운수, 고흥여객 등 전남지역 농어촌버스업체 10개사 대표와 전남버스조합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농어촌버스운송업계는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에 반대한다"며 "산업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할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금호타이어 해외 부실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u.co.kr

현대삼호중 임단협 타결...대형 조선업체 처음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국내 대형 조선업체 중 처음으로 2017년 임금협상을 무분류로 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7일 회사 생산관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57.6%(1142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410명 중 82.2%인 1984명이 참가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25~26일 벌인 제16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노사화합 격려금 100만원 지급 ▲경영위기 극복 격려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금 동결과 여름휴가를 1주 연장해 총 2주간 실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노사는 유유인락 해소를 위한 별도 TFT를 구성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염영=문병성기자 moon@

부안 숙박시설(모텔)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3개)
월 수익 2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용 6억 가능)

직매 010-7384-7800

수기동 상가(매매·임대)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5천만 투자 무료제공
보 1천만, 월 70만 / 즉시 임대 가능

1억 6천 → 9천8백 (용 5천)

영광 주택

급매 신축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

010-6670-9800

대신경매

입찰부터 ~ 명도까지
건설개발, 리모델링 전문
(사무실)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수익성 상가 추천 (기타)

- 북구 신안동 (10층 중 4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5천2백
-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6층 토 6평, 건 24평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첨단 오피스텔 (10층 중 7층) 토 2평, 건 11.7평 ▶ 감정가 9천2백 → 최저가 6천4백
- 북구 신원동 (8층 중 5층상가) 토 48평, 건 176평 음식점 프랜차이즈 시설완비, 권리금 없음 ▶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 북구 양산동 (아파트상가) 토 25평, 건 14평 ▶ 감정가 6천6백 → 최저가 6천6백
- 북구 오치동 (근린주택) 토 26평, 건 60평 ▶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
- 상무지구 4층 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이상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억9천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062-527-7600

경매교육

- 기초이론반
 - 매주 개강
 -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 실전투자반
 -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 창출 하실분
 -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 프리코스반
 -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주공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3억4천
- 광산구 산월동 첨단 호반리전세빌 (분양면적 36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

010-2699-5300
062-382-5500